

다언어 불교 용례 사전의 전산화

이 종 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목 차

1. 프로젝트명: 多言語 불교용례사전 프로젝트
2. 다언어 불교용례 사전 편찬작업의 배경
3. 다언어 불교용례 사전 편찬작업의 추진 과정
 - 1) 데이터의 입력 방식
 - 2) 추진중인 작업
4. 다언어 불교용례 사전 편찬의 의의

1. 프로젝트명: 多言語 불교용례사전 프로젝트

(The Multilingual Buddhist Terminology Dictionary Project, abbr. MBTDP)

— 불교의 수용양태를 소재로 아시아 문화 전체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탐구.

(예) 인도: 산스크리트어 불교 문헌; 동아시아: 漢譯대장경; 티벳: 티벳대장경; 스리랑카, 타이, 맘마 등 동남아시아: 暹羅대장경

— 불교전문술어의 현대 우리말 번역: 한역 탈피=>불교적 사유의 일반화, 한국 사상계에 불교 사상의 정당한 복원.

— 불교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학, 중국학, 티벳학, 동남아시아학의 기초자료로서 활용가능.

본인은 인도 마이솔 대학에 연구원으로 체재했던 1992년부터 ‘판디뜨 (Paṇḍit)’라고 불리는 인도의 전통적 지식인 및 산스크리트 학자, 그리고 티벳 승려의 협력을 얻어 <산스크리트어 사전 및 인도고전 번역 프로젝트>(SDICTP : The Sanskrit Dictionary and Indian Classics Translation 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언어 산스크리트어사전》 및 《다언어 불교용례사전》 편찬을 최종목적으로 삼는다. 이 일에 대한 기초작업으로 그사이 산스크리트어 불교 문헌 및 인도철학 관련 문헌, 티벳 대장의 일부를 일차적으로 DB화하였으며, 이 가운데 산스크리트어 불교 문헌 DB는 곧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CD-ROM의 형태로 출판될 것이다.

2. 다언어 불교용례 사전 편찬작업의 배경

이제까지 영국, 독일,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여러 종류의 산스크리트어 사전을 편찬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전들은 불교에 관련된 용어를 거의 수록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는 사전을 편찬할 당시만 하더라도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불교문헌이 거의 발굴되지 않았다는 역사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뜻 있는 인도학자나 불교학자의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결함은 지금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다. 기존의 산스크리트어 사전과는 다른 체제의, 불교용어를 아울러 수록한 새로운 산스크리트어 사전이 요청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다.

佛敎梵語文獻이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이다. 그후 인도학 및 불교학분야에서 많은 학문적 성과가 나타났으며 무엇보다도 네팔 등지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불교

범어사본과 투르판 및 돈황 불교문서는 불교연구자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자료의 보고> 노릇을 하였다. 불교범어는 비록 뿌라끄르뜨(Prākṛt, 지방어)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고전 산스크리트어와는 다른 파격적 語形을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中期 인도어(Middle Indic)에 속하며, 또한 대부분의 산스크리트어 불교 문헌은 전형적인 고전 산스크리트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불교자료가 축적된 지금, 불교 전문술어를 산스크리트어 사전에 수록해야 한다는 것은 학계의 당연한 요구이다.

일본에서는 1940년부터 일본 문부성의 후원을 받아 국가적 사업으로 산스크리트어 사전을 편집하기 시작하여 1974년 초판을 완성하였고 1979년 증보개정판 『梵和大辭典』을 발간하였다. 하나 하나의 표제어에 그에 상응하는 불교漢譯을 아울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한자문화에 친숙해 있는 불교학자들에게 어느 정도 학문적인 보조 역할을 해주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용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럽이나 인도에서 그 이전에 편찬해낸 사전보다 오히려 실용성이 뒤떨어진다.

1951년 드용(J.W. de Jong) 교수는 모니엘 사전(A Sanskrit-English Dictionary by M. Monier-Williams)에 대해서 “페테르스부르크 소사전에도 수록된 불교 자료가 이 사전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평가하여, 완벽한 산스크리트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다언어불교사전(A Polyglot Buddhist Dictionary)” 편찬에 힘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다.(*Vāk* no.1, Poona: Deccan College, 1951) 1953년에 에저톤(F. Edgerton)이 佛教混成梵語(Buddhist Hybrid Sanskrit) 사전 및 문법서를 편찬하여 드용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충족시키기는 하였으나, 드용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형편이다.

다언어 불교사전을 토대로 한, 산스크리트어 사전의 재편찬 사업은 전세계의 인도학계나 불교학계의 새로운 과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도학 및 불교학의 튼실한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이기도하다. 완벽한 외국어

사전이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길잡이 노릇을 해주며, 아울러 전문학자 및 초학자의 학적 작업을 더 한층 수준 높게 끌어 올려주는 교사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인도학과 불교학이 제대로 정착돼있지 않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아직도 일본 및 미국의 이차자료에 의존하는 ‘노예적 학문’이 연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학문적 작업의 기초인 산스크리트어사전의 편찬사업을 우리의 손으로 추진한다는 일은 이 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학의 울퉁은 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세계 학계에 우리의 주체적인 학문 역량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3. 다언어 불교용례 사전 편찬작업의 추진 과정

1) 데이터의 입력 방식

초기에 내가 구상한 사전 편찬 작업은 입력부, 사전 편찬부, 교정부의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좌절되어 그 계획을 대폭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내 능력에서 가능한 작업, 곧 기본 데이터 베이스 구축 작업에만 힘을 기울여 왔다. 이제까지 입력한 기본문헌은 다음과 같은데 (참조자료 1), (1)일반적인 불교 경전과 논서, (2)유식사상에 관련된 문헌(티벳어 번역 포함), (3)인도철학 관련 문헌, 이 세 분야로 방향을 맞추었다.

입력방식에 관해서 소개하겠다. 원자료(raw data)를 입력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데이터의 호환성이며, 둘째는 그 데이터가 어떠한 Operating System 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원칙에 따라 산스크리트어의 입력방식으로는 ASCII Code만을 썼다. 따라서 모든 파일은 텍스트파일(text file)로 이루어졌다.

입력방식의 예는 다음과 같다.

Trans	PCI	Trans	PCI	Trans	PCI	Trans	PCI
a	a	ā	aa	i	i	ī	ii
u	u	ū	uu	ṛ	R	ṝ	RR
ḷ	L						
e	e	ai	ai	o	o	au	au
ka	ka	kha	kha	ga	ga	gha	gha
ña	NGa	ca	ca	cha	cha	ja	ja
jha	jha	ña	NYa	ṭa	Ta	ṭha	Tha
ḍa	Da	ḍha	Dha	ṇa	Na	ta	ta
tha	tha	da	da	dha	dha	na	na
pa	pa	pha	pha	ba	ba	bha	bha
ma	ma	ya	ya	ra	ra	la	la
va	va	śa	\$a	ṣa	Sa	sa	sa
ḥa	Ha	ṃa	Ma				

- * Trans:로마자轉寫(Transliteration), PCI:퍼스널컴퓨터입력방식
- * 로마자로 轉寫할 경우, Visarga는 ḥ로, Anusvāra는 ṃ로 표기한다고 가정.
- * Avagraha부호는 일반적으로 기호“'”로 轉寫한다. 입력방식도 이와 동일하다.

티벳어의 입력방식도 산스크리트어 입력 방식과 같다. 예를 들면 산스크리트어 'nirvāṇa'의 티벳어역 가운데 하나는 'mya ñan las ḥdas pa'인데 이 단어는 'mya NGan las Hdas pa'로 퍼스널컴퓨터에 입력한다. 이 입력방식은 컴퓨터 화면상으로 원자료를 알아보기 쉽다는 점, 산스크리

트어와 티벳어를 입력할 때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쓰고 있는 KH(Kyoto-Harvard) 방식에 비해서 한결 사용하기 좋다.

2) 추진중인 작업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된 이상, 그것을 학술적인 목적에 맞추어 가공하는 것은 전문가의 몫으로 남는다. 내가 산스크리트어 사전이나 다언어 불교용례 사전을 구상하였을 때만 해도 내 머리 속에는 두터운 종이책 수십권으로 이루어진 사전이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비용도 문제겠지만 찾는 데 들이는 노력하며 비치하는데 필요한 공간하며 더 이상 쓸 데 없는 곳에 시간과 공간과 비용을 허비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CD-Rom 한 장으로 그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가 열린 것이다.

더구나 인터넷의 활용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텍스트 파일에서 막바로 전자 사전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언어 영역이 구축되고 또 쓰이고 있는 지금, 사전 편찬 작업과 관련된 선택지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 수학 분야나 이공계에서 테후(Tex/ LaTeX) 프로그램을 써 본 사람은 느낄 수 있겠지만—인도불교 영역도 포함할 수 있겠다— 텍스트 파일 수준에서 자료를 가공하는 이점은 한둘이 아니다. 이 점에서 다언어 불교 용례 사전을 편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마크업 랭귀지(mark-up language)로 SGML이나 XML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작업은 좀더 수월하게, 좀더 편안한 환경 안에서 수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내 작업의 일단을 피력함으로써 이 분야 컴퓨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

다언어 불교용례 사전 편찬의 첫 단계는 불교학분야의 고전에 해당하는 기본적 문헌들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이다. 우리말 번역이 우리말 어법에 맞는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되도록 우리말 교정 전문가에게 일단계 교정을 맡겨야 하며, 이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학계의 연구자에게 배포하여 또 한번의 교열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완성된 번역본은 문장단위가 아닌 단락단위로 재구성하여 텍스트전체의 科段을 덧붙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된다.

- (1) 산스크리트어 판본만 있는 경우 산스크리트어원문, 우리말 번역의 순으로 제시한다.
- (2) 산스크리트어원문에 대응하는 티벳어역이나 漢譯이 있는 경우 산스크리트어원문, 티벳어역, 漢譯, 우리말 번역의 순으로 제시한다. 티벳어역이나 漢譯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 그 역은 자동적으로 생략한다.
- (3)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티벳어역이나 漢譯만 남아있을 경우 티벳어, 漢譯, 우리말 번역 순으로 제시한다.
- (4) 초기불교의 阿舍經의 경우 대응하는 팔리(Pali) 니까야(Nikāya)를 아울러 제시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불교학분야의 고전들을 번역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이점을 취할 수 있다.

- (1) 산스크리트어 사전에 풍부한 용례를 실을 수 있는 典據가 마련된다.
- (2) 하나 하나의 텍스트의 번역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 티벳어, 중국어, 우리말 가운데 그 어느 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텍스트별로 용례집 및 索引集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각 문장별로, 키워드별로 마크업 해나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학 분야의 전문가와 컴퓨터 전문가의 공동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점에서 이와 같은 공동작업의 모델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학계에 모범을 보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며, 동국대 전자불전 연구소가 이 흐름에 초석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외국의 전문 불교학자들과 다언어불교용례 사전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환해 본 결과, 상당한 호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학계의 수준 제고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격려도 있었다. 단지 절차에 있어서 텍스트 별로 문헌학적인 성과를 축적시켜 나가며 그 텍스트의 다언어 용례사전을 편집하는 일이 학술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나는 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사론, 중론, 유식이십론, 유식삼십송, 중변분별론, 섭대승론, 니야야빈두 등 불교사상사에서 중요한 텍스트를 순서에 따라 다언어 전자 텍스트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참고로 구사론에 관한 일차적 작업의 결과를 제시한다 (참고자료 2).

4. 다언어 불교용례 사전 편찬의 의의

중국과 더불어 인도는 막대한 자연자원과 인구분포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인도는 중국에 비해 인적 자원의 교육수준이 높고 고급인력을 상대적인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도 한국의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이 인도현지에 합작회사의 형태로 자본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역사가 오

랜 민족의 경우, 그 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단지 자본의 논리로만 교역을 추진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인도인에게 “천박한 한국인”이라는 선입견만 심어 주게 돼 결국은 교역관계마저도 파탄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상품디자인 하나에도 그 나라의 문화적 기호가 깃들여 있음을 볼 때 대상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는 양국간의 경제관계수립뿐만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교류를 통한 선린우호관계의 형성에도 초석이 된다.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불교를 매개체로 인도문화에 접해왔고 또 불교가 이미 우리의 전통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도의 정신문화에 대한 우리의 先理解는 서양인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대적인 秀越性을 先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도문화의 핵심이라 할 불교 및 인도의 고전에 대한 천착은 이 점에서 우리의 문화를 返照해보는 작업이 되며 동시에 우리문화를 살찌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외국의 고전을 다루려고 할 때 원전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전연구 없이는 우리의 시각은 다른 제삼국의 학자들이 써논 이차자료에 의존하게 될 터이고 이는 결국 “노예적 학문”으로 향하는 지름길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언어 불교용례사전 프로젝트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원전연구를 작업의 토대로 삼고 있다.

학계의 일각에서 「한글고려대장경의 데이터베이스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그 모체가 되는 데이터의 정확도가 우선돼야하고 또 그 정확성이 입증될 때에만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가치가 있다. 『한글고려대장경』의 경우 우리말번역의 판본은 다름아닌 漢譯大藏經인데, 인도찬술 부분에 한정해 보면, 漢譯大藏經은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불교문헌의 중국어 번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漢譯大藏經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는 것은 결국 重譯에 그칠 위험이 있다. 물론 중국

인의 번역을 우리말로 재번역한다는 것도 무의미한 작업은 아니다. 중국인들이 불교문헌을 번역하기 위해 들인 수백년의 세월을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산스크리트어원전을 생각할 때 더더욱 漢譯大藏經의 가치는 중요하다. 하지만 산스크리트어원전이 남아있을 경우 일차자료가 산스크리트어원전이 돼야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더구나 자료적 가치를 논할 때 漢譯大藏經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티벳대장경이 있다. 티벳어 번역은 대개의 경우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자구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漢譯에 비해 원문을 복원하기 쉬운 장점이 있고, 인도의 학자와 티벳의 번역관이 공동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그 번역의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불교문헌을 번역함에 있어서 漢譯大藏經에만 의존하는 작업태도는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한글고려대장경』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이제까지의 번역작업이 철학적인 論書의 번역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과, 그 번역마저도 학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우리말 번역의 신뢰성을 검증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論書는 철학적 작품으로 엄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불교사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자의적 해석을 제어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대의 불교사상 연구는 주로 논서의 분석에 향해지고 있다. 다언어불교용례사전 프로젝트는 불교 논서의 번역에 중점을 두고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번역의 신뢰성을 물어 자연스러운 우리말 번역을 완성하도록 할 것이다.

다언어불교용례사전 프로젝트의 모든 성과물은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돼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인도학, 불교학에 흥미를 갖고 있는 학자및 일반동호인에게 제공될 것이다. 사원에서는 승려교육용 교재로서 본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연구성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프로젝트의 모든 성과물을 CD롬으로 만들어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1>

Text name	bytes	Remark
<1>		
AKBH-VY1 SKT	226,593	sphuTaarthaa
AKBH-VY2 SKT	407,033	
AKBH-VY3 SKT	230,327	
AKBH-VY4 SKT	233,293	
AKBH-VY5 SKT	165,141	
AKBH-VY6 SKT	239,916	
AKBH-VY7 SKT	125,256	
AKBH-VY8 SKT	77,976	
AKBH-VY9 SKT	60,264	
AKBH SKT	1,121,129	abhidharmako\$ā
<2>		
PV-V SKT	1,067,130	pramaaNavaartikavRtti
HB-TIKA SKT	412,282	hetubinduTiikaa
VN SKT	72,762	vaadanyaaya
VN-TIKA SKT	274,979	vaadanyaayaTiikaa
NB-TIKA SKT	174,741	nyaayabinduTiikaa
<3>		
MANU SKT	313,887	manusmRti
<4>		
SDP SKT	540,713	saddharmapuNDariikasuuutra(Kern)
DBH SKT	178,915	da\$abhumikaasuuutra(Rahder)
LANGKA-V SKT	157,946	laNGkaavataarasuuutra(Nanjo)
LANGKA-P SKT	226,302	laNGkaavataarasuuutra(Nanjo)
ASAA SKT	1,641,736	AbhisamayaalaMkara(Wogihara)

BBH-2	SKT	446,676	bodhisattvabhumi(Wogihara)
BBH-1	SKT	60,404	bodhisattvabhumi(Rahder)
\$BH	SKT	459,906	\$raavakabhumi(Shukla)
<5>			
PP	SKT	576,102	prasannapadaa
<6>			
NBH	SKT	353,008	nyaayabhaaSya
NS	SKT	33,088	nyaayasutra
NVA-T	SKT	1,176,139	nyaayavaartikataatparyaTiikaa
NVA	SKT	673,610	nyaayavaartika
TBH	SKT	79,568	tarkabhaaSaa
PRA\$ASTA	SKT	82,033	pra\$astapaadabhaaSya
VS	SKT	21,226	vai\$eSikasutra
SPBH	SKT	348,138	saaMkhyapracanabhaaSya
SS	SKT	27,473	saaMkhyasutra
STK	SKT	114,484	saaMkhyatattvakaumudii
YBH	SK	130,362	yogabhaaSya
YS	SKT	12,323	yogasutra
<7>			
VY	TIB	716,883	vyaakhyaayukti(Tibet)
VYT-D	TIB	652,736	vyaakhyaayukti-Tiikaa(Tibet)
PSV-D	TIB	39,829	pratiityasamutpaadavyaakhya(Tibet)
PSV-TIKA	TIB	706,327	pratiityasamutpaadavyaakhya-Tiikaa(Tibet)
VKV	SKT	17,569	viM\$atikaavRtti
VK-D	TIB	3,301	viM\$atika(Tibet)
VKV-D	TIB	22,231	viM\$atikaavRtti(Tibet)
TK	SKT	3,928	triM\$ikaa
TK-BH	SKT	68,105	triM\$ikaavijNYaptibhaaSya
TK-D	TIB	4,416	triM\$ika(Tibet)

KSP-D	TIB	40,425	karmasiddhi(Tibet)
MSABH	SKT	349,133	mahaayaanasuutraalaMkaara-bhaaSya
DDVV	SKT	5,347	dharmadharmataavibhaNGga-vRtti
DDVV-D	TIB	41,790	dharmadharmataavibhaNGga-vRtti(Tibet)
MV-TIKA	SKT	334,445	madhyaantavibhaagaTiikaa
MVBH	SKT	68,523	madhyaantavibhaagabhaaSya
MVBH-D	TIB	98,314	madhyaantavibhaagabhaaSya(Tibet)
PSP-D	TIB	20,433	paNYcaskandha(Tib)
TSN	SKT	4,495	trisvabhaavanirde\$a
TSN-D	TIB	5,544	trisvabhaavanirde\$a(Tib)
<8>			
MBHA	TXT	2,449,606	MahaabhaaSya
SIDHK	SKT	1,089,903	VaiyaakaraNasiddhaantakaumudii
KAS\$IKA	TXT	1,773,871	Kaa\$ikaavRtti
<9>			
TATTVAS	SKT	1,361,817	TattvasaMgraha(+paNYjikkaa)

<참고자료2> [略号 생략]

{%Skt 1-1}[Pra.1:3-7, Ej.1:1-9]

[oṃ namo buddhāya //]
yaḥ sarvathāsarvahatāndhakāraḥ
saṃsārapaṅkāḥ jagad ujjahāra /
tasmai namaskṛtya yathārthaśāstre
śāstraṃ pravakṣyāmy abhidharmakośam //1-1//
śāstraṃ praṇetukāmaḥ svasya śāstur māhātmyajñāpanārthaṃ
guṇākhyānapūrvakaṃ tasmai namaskāram ārabhate //

{%Tib 1-1}[P.27b6-8, D.26a1-2]

[D.26a] [/rgya gar skad du/ a-bhi-dha-rma-ko-ṣa⁽¹⁾-bhā-śyam/ bod skad du/
chos mñon paḥi mdsod kyi bśad pa/ ḥjam dpal gṣon nur gyur pa la phyag
ḥtshal lo/]

/gañ ṣig kun la mun pa gtan bcom ṣiñ/
/ḥkhor baḥi ḥdam las ḥgro ba drañs mdsad pa/
/don bñin ston pa de la phyag ḥtshal nas/
/chos mñon mdsod kyi bstan bcos rab bśad bya/(1-1)
/bstan bcos byed par ḥdod pas rañ gi ston paḥi che baḥi bdag ñid śes par
bya baḥi phyir de la yon tan brjod pa sñon du ḥgro baḥi phyag ḥtshal ba
rtsom⁽²⁾ mo/

(1)P.ṣa=ṣam (2)P.rtsom=brtsom

{%Chn1 1-1}[Z.161c5-8]

<<一切種智滅諸冥. 拔出衆生生死泥. 頂禮大師如理教. 對法俱舍我當說.>> 釋曰. 若人欲正造論, 當令他知大師不共功德, 故說衆德爲先, 後頂禮大師.

{%Chn2 1-1}[X.1a5-8]

<<諸一切種諸冥滅. 拔衆生出生死泥. 敬禮如是如理師. 對法藏論我當說.>> 論曰. 今欲造論, 爲顯自師其體尊高超諸聖衆, 故先讚德方申敬禮.

{%Kor 1-1}

[佛世尊은]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유형의 어둠을 없애고, 윤회의 수렁에서 중생을 건져올리셨도다. 있는 그대로의 實相을 가르치시는 스승님이신 그 분께 머리 조아려 경배하옵고, 이제부터 나는 『아비다르마꼬샤』 (Abhidharmakośa)라고 하는 論書를 講論하겠다. (1-1)

논서를 짓고자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스승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스승의 덕을 찬탄한 후 그 [스승님]께 경배를 올린다.

=====

{%Skt 1-2}[Pra.1:9-15, Ej.1:10-18]

ya iti buddhaṃ bhagavantam adhikṛtyāha / hatam asyāndhakāram anena veti
 hatāndhakāraḥ / sarveṇa prakāreṇa sarvasmin hatāndhakāraḥ
 sarvathāsarvathatāndhakāraḥ / ajñānaṃ hi bhūtārthadarśanapratibandhād
 andhakāram / tac ca bhagavato buddhasya pratipakṣalābhenātyantaṃ sarvathā
 sarvatra jñeye punaranutpattidharmatvād dhatam / ato 'sau
 sarvathāsarvathatāndhakāraḥ /

pratyekabuddhaśrāvakā api kāmam sarvatra hatāndhakārāḥ /

kliṣṭasam̐mohātyantavigamāt / na tu sarvathā / tatha hy eṣāṃ
buddhadharmesv ativiprakṛṣṭadeśakāleṣu artheṣu cānantaprabhedeṣu bhavaty
evākliṣṭam ajñānam /

{%Tib 1-2}[P.27b8-28a4, D.26a2-6]

/gañ ṣig ces bya ba ni/ sañs rgyas [P.28a] bcom ldan ḥdas⁽¹⁾ kyi dbaṅ du
byas nas smras paḥo/ /ḥdiḥi ḥam ḥdis mun pa bcom bas mun pa bcom paḥo/
/thams cad la mun pa rnam pa thams cad du bcom pas kun la mun pa gtan
bcom paḥo/ /mi śes pa ni yañ dag paḥi don mthoñ ba la bgegs su gyur paḥi
phyir mun pa ste/ de yañ sañs rgyas bcom ldan ḥdas⁽¹⁾ kyiḥ gñen po brñes
nas śes bya thams cad⁽²⁾ la phyis mi skye baḥi chos can du gyur paḥi phyir
gtan nas ye bcom pa ste/ deḥi phyir ḥdi⁽³⁾ ni kun la mun pa gtan bcom
paḥo/

/rañ⁽⁴⁾ sañs rgyas dañ ñan thos rnams kyañ ñon moñs pa can gyi rmoñs⁽⁵⁾ pa
dañ bral baḥi phyir kun la mun pa bcom par ni ḥdod mod kyi gtan nas ni
ma yin te ḥdi ltar de dag la sañs rgyas kyi chos dañ/ yul dañ/ dus śin tu
bskal pa dañ/ don rab tu dbye ba mthaḥ yas pa rnams la ñon moñs pa can
ma yin paḥi mi śes pa yod pa ñid do/

(1)P.ḥdas=ḥdas rnams. (2)P.cad=cad cad. (3)D.ḥdi=ḥdiḥi. (4)D.rañ=de rañ.
(5)P.rmoñs=moñs

{%Chn1 1-2}[Z.161c8-16]

此偈但依佛世尊說。偈曰。 <<一切種智滅諸暝>>。釋曰。滅一切暝，由一切種智於一切法。無明者，能障見真實義，故稱為暝。此無明於佛世尊，由得究竟通對治故，一切種於一切法，永不生為法故，故稱為滅。獨覺及聲聞，於一切法，雖除無明，由有染污無明極不生故，不由一切種。何以故。諸餘聖人，於如來不共法，及於餘境最久遠時處

無邊差別, 有無染汚無明.

{%Chn2 1-2}[X.1a8-16]

諸言所表謂佛世尊. 此能破闇故稱冥滅. 言一切種諸冥滅者. 謂滅諸境一切品冥. 以諸無知能覆實義及障眞見, 故說爲冥. 唯佛世尊得永對治, 於一切境一切種冥, 證不生法故稱爲滅. 聲聞獨覺雖滅諸冥, 以染無知畢竟未斷, 故非一切種. 所以者何. 由於佛法, 極遠時處, 及諸義類無邊差別, 不染無知猶未斷故.

{%Kor 1-2}

[관계대명사] <yah>는 불세존에 걸리는 말이다. 이 자에 있어서 혹은 이 자에 의해서 어둠은 없어졌기 때문에 <어둠을 없앤 자>(hatāndhakāra)이다.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유형의 어둠을 없앤 자가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유형의 어둠을 없앤 자>(sarvathāsarvahatāndhakāra)이다.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無知야말로 <어둠>(andhakāra)이다. 그런데, 불세존은 [그 無知를] 없애는 길(pratipakṣa 對治)을 얻으셨고, 그 때문에 [불세존에 있어서] 모든 앎의 대상(jñeya 所知)에 대한, 모든 유형의 그 [無知]는 영원히 또다시 생기는 일이 없는 현상이므로, [불세존은 無知 곧 어둠을] <없앤 자>(hata)이다. 그러므로 이 [불세존]은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유형의 어둠을 없앤 분>(sarvathāsarvahatāndhakāra)이다.

獨覺(pratyekabuddha)이나 聲聞(śravaka)들도 번뇌에 물든 어리석음을 영원히 떠나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어둠을 없앤 분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유형의 [어둠을 없앤 분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에게는 [아직도] 붓다의 제 특성(=如來十八不共法)에 대해, 극히 멀리 떨어진 공간과 시간에 대해, 그리고 끝없이 다종다양한 대상에 대해 번뇌에 물들지 않은 무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